

# “나눔 · 배려 · 봉사 실천을”

## 무주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지회장 황의탁) 화합행사가 지난 13일 무주읍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유송열 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 박명자 전라북도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무주군지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김집섭 씨(59세, 부남면)와 박연순 씨(64세, 설천면), 김재희 씨(43세, 무주읍), 최성욱 씨(63세, 안성면), 이우석 씨(69세, 적상면), 곽희자 씨(54세, 무풍면)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이바지 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서운식 씨(54세, 무주읍)와 이정욱 씨(64세, 안성면)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표창을, 황중호 씨(69세, 설천면)와 박해수 씨(62세, 적상면)가 전라북도새마을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박해신 씨(56세, 무주읍)와 하현영 씨(53세, 무풍면), 허현순 씨(71세, 안성면), 최종구 씨(46세, 설천면), 김정숙 씨(57세, 적상면), 박찬순



13일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화합행사에 황정수 군수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씨(60세)가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2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삶과 의미”를 주제로 한 시례발표 시간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으며,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등 화합행사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이날 황 군수는 “지역을 위해 뛰고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항상 든든하다”며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따뜻한 무주를 만들고 새마을정신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앞당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울러, 황의탁 지회장은 “무주군지회는 제2새마을운동의 덕목인 나눔, 배려,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고 “오늘 이 대회가 지도자 상호간 정보교류와 화합으로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984년 창립된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는 2003년 11월 전라북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이후 1천6백여 명의 회원들이 건강 나눔과 농악 공병 모으기, 캄보디아 헌옷보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 돕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 장수군 오지마을에 상수도 공급

## 지역행복생활권 공모 선정 9억원 투입 8월 개통 예정

계곡수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진안군과 장수군 경계지역인 진안을 가막리, 동량면 화산리 등 오지마을에 오는 8월부터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진안군과 장수군 경계지역인 진안을 가막리와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는 군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 특성상 상수관로 설치 구간이 길고 배수기압장 등 수도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안군과 장수군이 뜻을 모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선정



되어 이 지역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은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착공되어 오는 8월 개통 예정으로 진안군과 장수군이 정수장과 배수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상수관로 연장이 단축되어 진안군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배다 10억여원의 예산 절감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향로 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간 상생 협업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사업이 완료되면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지역 3개 마을 88세대 157명의 오지마을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으뜸도시 완주 건설에 매진할 터” 김흥기 부군수 취임식에서

“집사공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완주군을 대한민국 으뜸 지역으로 올려놓는데 힘껏 매진하겠습니다.”



13일 신임 완주 부군수로 취임한 김흥기(金洪基·58·사진) 부군수는 “앞으로 박성일 군수를 보좌하며, 직원 및 군민들과 힘을 합쳐 민선6기 완주군의 주요 현안이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군수는 “완주군은 민선6기 후반이 들어 ‘모바일 완주’, ‘트레상스 완주’, ‘농도피아 완주’란 3대 핵심정책과 어르신 복지, 미래세대 육성 등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전반이 못지 않은 성과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지난 39년 공직생활의 경험과 인맥 등의 살려 이를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군수는 “공직사회의 열정과 안정이 군정 추진에 중요한 만큼,

직원과 단체장,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창 출신인 김 부군수는 고창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77년 공직에 입문한 뒤 남원시 복지과장, 전북도 감사총괄담당, 전북도 다문화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13일에는 전북도체육회로 자리를 옮기는 김대규 전임 부군수의 이임식도 함께 거행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모악산 입구~대원사 등산로변 상사화 심어

## 1.5km 구간 볼거리 제공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 도립공원의 입구에서 대원사까지 이르는 등산로에 붉은 꽃무릇으로 장관을 이루는 상사화의 자태가 펼쳐진다.

13일 완주군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모악산 등산객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북, 군비 등 총 1억 9000만원을 투입해 등산로변에 상사화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상사화가 심어진 구간은 등산로 입구에서 대원사까지의 도립미술관 뒤

산책로변 등 약 1.5km 구간으로, 면적으로는 6,400㎡다.

군은 이 구간에 총 22만7,500본의 상사화를 식재하는 한편, 잡초 및 잡목 제거 등 주변기반 정비도 추진했다.

한편이 원산지인 상사화는 보통 7월부터 9월까지가 개화시기이며, 붉은 꽃무릇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꽃이다.

특히 앞은 앞대로 피고, 꽃은 꽃대로 핀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뤄지지 않는 사랑’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모악산 등산로변에 식재된 상사화는 앞으로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의 또 하나의 명물로 사랑받을 전망이다.

완주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사업비 8억원을 들여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2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군 시설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상사화는 개화시기에 더욱 더 많은 탐방객의 증가는 물론, 평상시에도 모악산을 오르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 배넬실마을 해바라기 만개

## 15일~8월 10일까지 축제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종환) 금지배넬실 마을 일대에서 해바라기 축제기간 오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는 물론 체험행사,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7월 29일에 개막 축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사진 포토존, 야간 경광등을 이용하여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장권(마을화폐)을 발매하여 지역 특산물과 교환하거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해바라기 축제장은 7ha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지난 3월부터 로터리 작업 및 종자 파종, 잡초제거 등을 거쳐 정성스럽게 가꾼 결과로 노란색으로 물들인

예쁜 공원으로 변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또한 해바라기 축제가 끝난 후 해바라기 기름을 추출하여 형제 결연 단체 등 10년 동안 확보한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은 마을 경제와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춘식 축제위원장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자립복지 농촌마을을 구축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북돋는 일에 힘써서 미려하나마 통일을 대비하는 금지배넬실마을이 되기 위해 축제명칭을 ‘금지배넬실농일해바라기축제’로 정했다”며 “처음 시행되는 해바라기 축제여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많이 찾아오셔서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많은 감동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눔 대축제

## 15~17일 남대천교 천변서

제2회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눔 대축제가 오는 15일~17일까지 3일간 무주를 남대천교 하부 천변(우천 시 예체문화관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이정숙)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15일 저녁 7시부터는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인의 밤(개막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난타, 색소폰, 댄스, 장구, 밴드 등 분과 공연)이, 16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풍물, 색소폰, 난타, 댄스, 시조, 우쿨렐레 등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지역 동호인들이 함께 꾸미는 산골음악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17일 저녁 7시부터는 전북을 비롯한 경북, 경남, 충남 등 6개 지역 9개 팀이 참가하는 무주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



고 있다.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정숙 회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민들과 무주를 찾는 관광객, 그리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참가자 여러분을 위해 정성을 다한 무대”라며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 보고 즐겨주세요”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청소년 체련교실 ‘호응’

장수군은 13일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련교실은 장수군체육회 생활체육교실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이날 참가학생들은 장수승마체험장과 장계수상스키장에서 승마와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호연지기를 길렀다.

군은 청소년 체련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참여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긍

정적, 적극적인 사고 함양으로 청소년의 체력발달과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 시키나갈 계획이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련교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 생활체육교실은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육교실, 장수(長壽)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립농정리

## 장수군, 도내 세외수입 ‘최우수’

장수군(군수 최용득)이 2016년 전북도 세외수입 업무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세외수입 징수율,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등 5개분야 7개 지표로 이루어졌으며 장수군은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수군은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체 정리기간 2회 운영 및 부서별 징수목표액 부여와 징수대책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진안군은 올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 5개 사업에 1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봄 기상 여건이 좋아 지난해 과중한 호밀·R(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20일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었고 등 일작업을 통해 수확량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3,153톤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생산된 호밀·R 등 조사료는 곤포사일리지(통글레 압축하여 잘라 발효제를 첨가하여 만든 닭근먹이)로 만들어 소, 염소 등 초식가축에게 급여하면 고품질의 우유나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 등 곡물가격 인상 및 사료값 부담으로 풀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축산농가들이 사료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논, 밭, 유휴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군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377ha에 이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물’ 운영 활성화 교육

장수물영농조합법인(대표 신광호)은 지난 12일 장수물 임점자를 대상으로 장수물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장수물 운영시스템 회사인 제이엔에스 관계자로부터 장수물 가입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어 인디케이 관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블랙퍼머스 사업에 대한 소개와 가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 임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물영농조합은 지난해 9월 장수물을 오픈, 현재 9개 생산농가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장수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을 포함해 10개 품목이 임점하여 운영되고 있다.

신광호 대표는 “앞으로도 출항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해 장수물 활성화를 꾀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직거래를 통한 장수물 운영으로 주민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고교 학생회장단선거 터치스크린 투표개 활용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13일 실시한 무주고등학교 학생회장 단선거를 ‘터치스크린 투표개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했다.

이날 실시한 ‘터치스크린 투표개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조회·확인, 투표권카드 발급,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비 및 운영체제로 구성되어 투표 및 개표관리를 위한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선진 선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주선관위는 미래유권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민주 시민교육 실시, 학교선거 매뉴얼 보급,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